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 No. 475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김경환 • www.krihs.re.kr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류승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연미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윤석 국토연구원 연구원, 이석희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원

요 약

- 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평균 일자리 증가율이 11%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성장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낮은 일자리증가율(9%)에 기인
- ② 반면, 대표적 창조산업인 연구개발업은 동기간 동안 42.7% 일자리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중요
- ③ 지역별로는 구직자의 75%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원하고, 연구개발업 종사자의 수도권-지방 격차도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두 배 이상 벌어지면서 수도권은 연구개발, 지방은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의 지역구조가 고착·심화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창출의 양극화 현상 극복이 필요

정 책 방 향

- ① 연구인력 유출, 제조업고용 감소, 창업인력 부재의 3중고를 겪는 지방의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지원과 연구인력의 지방유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창조적이고 내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함
- ② 고용창출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 산업단지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산단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비제조업분야의 유치·육성 및 도심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연구개발, 창업기지로 재탄생
- ③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지 못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고용에 친화적인 전략산업의 선정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의 지역연고, 지역고용에 대한 기여정도를 평가·고려해야 함

1. 산업 및 지역별 일자리 현황과 변화

● 고용과 일자리 실태

- 2000년대 이후 제조업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수출·생산보다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강조
- 한국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GDP대비 고용탄력도가 가장 낮아 고용 없는 성장이 심한 나라 중 하나(Asian Development Bank, 2011)
- 2011년 1분기 전체 일자리의 79.9%가 서울·경기의 수도권지역에서만 창출되면서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잡코리아, 2012.5.30.)

● 산업 및 지역별 일자리 변화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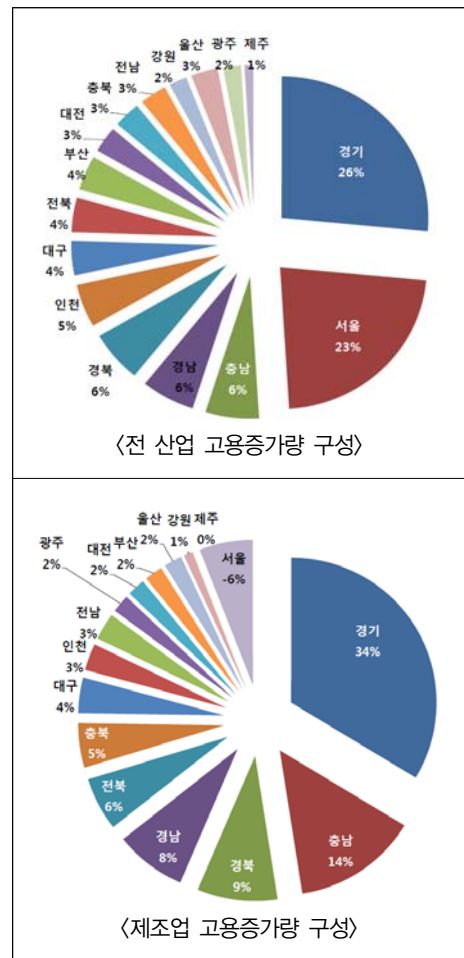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일자리는 1,628.8만 명에서 1,809.3만 명으로 180.4만 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평균 11.1% 증가

- 한국 경제성장의 전통적 기반인 제조업의 일자리는 전국평균 고용증가율인 11.1%에도 못 미치는 9.3% 증가(329.5만 명에서 360.3만 명 증가한 360.3만 명 수준)
- 반면,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1,296.3만 명에서 1,445.7만 명으로 149.4만 명이 증가해 전국 산업별 평균 고용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11.5% 증가
- 서비스업 중에서도 연구개발업(42.7%), 교육서비스업(2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5%)에서의 고용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연구개발과 교육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두드러짐

- 동기간(2008~2011) 중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지역별 쏠림 현상이 현저

- 고용증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서울, 충남지역이며 전국고용의 절반 이상이 경기(27%), 서울(23%), 인천(5%) 등 수도권(53%)에서 창출

그림 1 전체 산업 및 제조업의 지역별 고용 증가 구성비(2008~201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 지역·산업별 일자리 변화 실증분석 결과

● 일자리 변화할당률 분석(E-M shift-share analysis)

■ E-M 변화할당률 분석

- Esteban-Marquillas¹⁾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경제 분석기법인 변화할당률 분석을 이용하여 지역의 고용구조와 국가의 고용구조가 동일하다는 동조고용(homothetic employment) 개념을 사용하여 지역의 산업별 경쟁력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
- 특히, 기존 변화할당률 분석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할당효과를 전문성과 경쟁력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지역의 산업이 전문화되었는지, 다른 지역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를 설명

■ E-M 변화할당률 분석결과

- 거의 모든 제조업의 고용성장률(산업구조효과)이 전체산업의 고용성장률(국가성장효과)보다 낮거나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존재
- 다만, 일부 첨단제조업(의료기 정밀기기) 등의 경우에는 기술발달과 함께 고용창출이 양의 값을 보여 국가전체의 평균적인 고용창출률을 상회
- 산업구조적으로 신규 고용창출과 증가에 한계가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은 여전히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담당(서울은 유일하게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의 지역경쟁력이 있음)
- 제조업을 제외하고 고용창출의 핵심산업인 기업지원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은 수도권, 대전, 울산, 경남 등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내생적 성장전략을 추진하기에 한계
-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별 일자리창출 구조에 있어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

● DHS기법을 활용한 지역·산업별 일자리 실증분석

■ DHS기법

- Davis, Haltwanger and Schuh(1993)²⁾이 개발한 분석방법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별 일자리 변화특성을 보다 자세히 관측할 수 있음
- 특히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물론 소멸된 일자리가 어떤 산업으로 흡수되는지 나타내는 일자리흡수율까지 분석이 가능

1) Esteban-Marquillas, J. M, 1972, Shift and Share Analysis Revisited,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2, no.3: 249-261

2) Davis, S., J. Haltwanger, et al, 1993, Small Business and Job Creation: Dissecting the Myth and Reassessing the Facts, *NBER Working Paper* 4492, Cambridge, MA.

■ DHS 분석결과

- 충남, 경기 등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지역에서는 일자리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지역에서의 일자리 흡수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소멸이 새로운 산업의 고용흡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산업별로는 연구개발,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흡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술과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대체되거나 감소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실증

●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한 지역별 일자리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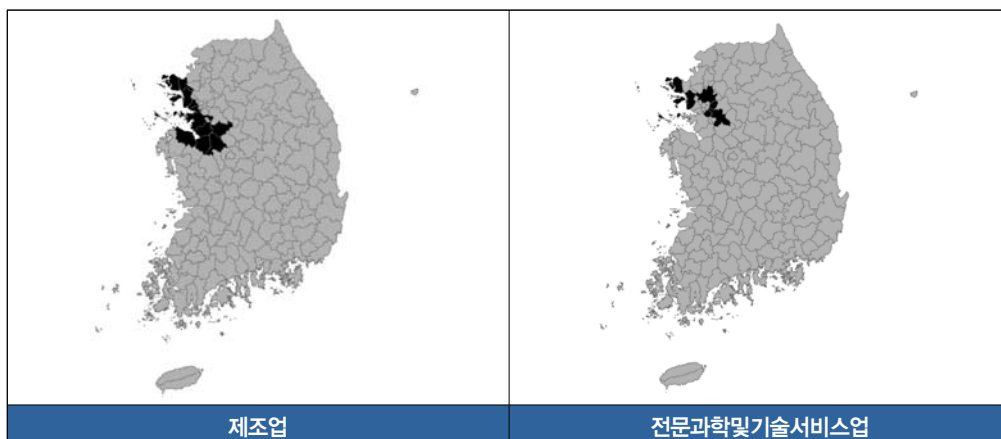
■ Local Moran's I를 활용한 지역별 일자리 핫스팟 분석기법

- 기존 산업별, 지역별 고용창출 효과분석은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많이 일어난 지역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Local Moran's I를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 효과가 배제된 보다 객관적인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며 다양한 핫스팟 분석이 가능

■ 지역별 일자리 핫스팟 분석결과

- 제조업 고용증가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고용증가가 발생한 지역은 수도권 남서부와 천안, 당진 등 충남권으로 나타남
- 지역의 내생적 성장에 중요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특히, 용인, 성남, 수원, 서울, 인천지역이 전국에서 고용증가량이 가장 높은 핫스팟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2 고용증가량 핫스팟(2011)



● 구직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 실증분석, 공간분석과 별도로 일자리 수요자들의 주관적 선택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구직포털사이트의 회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 분석결과 사무직과 연구개발직에 대한 구직수요가 제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구직경험이 있는 구직자일수록 제조업을 기피
- 구직자 대부분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입지여건, 환경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 입지여건의 개선이 필요

3. 지역산업 육성 및 산업입지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 정부는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정책을 추진 중이며,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8~2011년 동안 광역시·도에서 post4+9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시행
- 그동안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의 분류기준이 상이해 전국단위에서 객관적인 비교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의 분류코드를 산업별로 집계하고 이를 근거로 시·도별 고용증가율과 고용증가량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해 지역전략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검증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 검증

- 부산광역시의 지역전략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은 2008~2011년 동안 4,284명 증가했으나 이는 경기도의 해양바이오산업 고용증가량인 10,240보다 낮으며 고용증가율도 인천, 대전, 울산, 제주 등에 비해 낮음
- 부산광역시의 또다른 지역전략산업인 영상/IT산업은 2008~2011년 동안 고용증가량이 -771명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용손실을 경험
- 부산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의 전략산업 모두 고용증가량이나 고용증가율에서 여타 지역 및 산업에 비해 뚜렷한 신장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지역전략산업은 절대적인 고용량은 물론이고, 지역고용증가량 대비 고용기여도 모두에서 지역의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수정이 필요함

표 1 2008년 대비 2011년 기준 지역전략산업의 고용증가량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업별 고용 창출	전산업	1,804,910	419,035	66,313	70,359	83,379	35,698	58,883	47,121	481,771	35,777	53,580	106,646	69,084	51,656	101,024	101,709	22,875
	제조업	310,211	-19,840	6,545	14,731	10,381	7,656	7,730	7,631	117,913	3,667	16,765	47,549	20,316	9,780	30,803	28,417	167
	생산자서비스업	465,973	159,154	19,578	19,374	23,318	7,180	15,966	13,316	124,952	9,038	7,808	17,007	9,365	6,540	13,185	15,153	5,039
	소비자서비스업	633,435	119,545	25,854	22,338	35,156	17,920	22,047	12,919	186,542	15,373	19,423	30,244	26,110	19,307	29,921	37,505	13,231
부산 전략 산업	해양바이오	41,678	2,557	4,284	1,237	6,672	592	4,234	1,268	10,204	822	1,517	442	1,932	1,311	1,941	1,846	819
	기계부품소재	192,183	-5,132	6,061	12,979	6,233	4,101	3,868	4,789	58,659	1,439	8,796	23,886	14,264	7,693	19,413	25,218	-84
	영상/IT	83,670	31,987	-771	372	2,090	1,019	884	-231	37,786	256	2,896	12,632	190	-611	5,829	250	405
대구 전략 산업	섬유	9,473	3,205	-121	1,375	165	-24	-257	197	974	102	330	221	145	-269	2,712	739	-21
	메카트로닉스	121,028	83	4,592	8,872	3,898	2,169	2,285	2,896	33,678	1,255	9,580	16,213	8,277	2,774	11,053	13,397	6
	전자정보기기	98,234	27,316	-4,336	342	2,116	1,477	1,172	-1,397	54,984	1,267	150	6,746	165	115	7,125	550	442
광주 전략 산업	생물	14,416	-514	502	-36	1,181	298	1,173	144	1,869	1,291	2,375	3,131	961	828	227	657	329
	광산업	37,948	-196	174	1,232	827	1,362	1,598	748	17,959	665	3,163	5,974	1,880	1,722	3,428	-2,605	17
	자동차부품	79,939	-1,562	4,005	8,281	1,418	2,650	1,055	528	26,354	901	2,913	8,767	6,441	1,256	6,785	10,124	23
	정보가전	14,230	7,270	76	668	-117	135	-180	-897	3,751	178	421	323	583	207	534	914	364
대전 전략 산업	디자인	10,990	3,266	335	782	241	-645	757	130	2,635	-233	-222	488	230	-41	1,137	1,642	488
	정보통신	32,211	13,331	-4,320	514	726	1,299	1,476	313	15,397	1,147	-2,507	2,124	208	519	1,567	707	-290
	바이오	77,156	16,905	2,361	526	4,517	1,488	4,719	-226	35,096	1,594	2,571	2,801	1,223	870	52	2,159	500
	메카트로닉스	42,024	18,581	1,151	2,174	651	874	1,321	412	18,258	1,009	-692	3,881	366	307	1,111	4,156	-223
울산 전략 산업	첨단부품소재	27,759	400	1,083	562	67	1,101	1,351	501	10,031	115	4,022	4,547	2,595	1,125	1,274	-1,137	122
	자동차	42,538	334	1,295	3,412	1,380	260	414	2,982	10,622	-90	3,863	6,250	2,235	-77	5,530	4,126	2
	정밀화학	11,044	52	-47	50	-398	245	656	397	3,636	435	747	1,355	2,027	1,342	906	-373	14
	조선해양	11,451	-290	-2,047	10	-479	-241	39	2,166	1,834	103	319	703	2,211	3,198	684	3,290	-49
강원 전략 산업	환경	12,081	1,683	650	253	-412	284	-89	-855	2,754	653	1,724	880	1,091	484	1,029	1,902	50
	바이오	29,123	1,307	515	125	1,034	388	5,132	1,317	5,495	1,396	3,657	2,872	2,794	1,449	1,187	458	-3
	의료기기	7,985	1,445	464	294	288	288	179	42	2,993	693	360	216	204	98	32	379	10
	신소재방재 플라즈마	33,082	-128	2,723	2,049	26	1,128	352	1,394	9,217	77	2,151	4,244	3,840	1,160	3,683	1,185	-19
충북 전략 산업	관광문화	14,040	6,806	-474	-325	779	-429	-58	-371	2,795	1,652	-47	169	503	1,351	378	507	804
	바이오	62,553	11,645	1,248	212	2,702	501	4,794	495	29,246	1,201	2,820	2,255	999	552	838	2,855	190
	반도체	53,605	18,381	-653	800	413	771	2,467	282	25,061	680	1,077	2,627	2,219	1,104	-82	-1,102	-440
	차세대전지	15,835	-746	3,796	595	-529	334	538	-75	5,636	-96	1,513	1,727	2,354	745	467	-432	8
충남 전략 산업	전기전자융합	70,978	-144	-384	2,424	2,655	2,590	1,794	-575	32,057	1,184	2,288	16,876	2,346	-225	5,522	2,594	-24
	첨단문화	35,545	41,140	-3,677	244	282	1,104	1,739	204	3,863	1,056	-1,617	1,727	245	1	-1,735	1,515	767
	전자정보	68,417	-720	1,250	1,107	2,201	3,353	1,249	-1,382	38,103	189	5,265	12,195	1,202	-82	4,798	-317	6
	자동차부품	74,465	-1,805	4,319	6,587	-1,614	2,061	1,429	2,618	18,156	1,120	4,520	11,894	4,303	18	8,433	12,461	-35
전북 전략 산업	농축산바이오	12,745	-698	-59	-435	-27	111	302	400	4,383	661	2,718	1,648	1,375	1,437	300	359	270
	생물	20,628	-1,760	112	-300	1,589	383	1,128	155	5,992	2,021	3,649	3,220	1,806	945	812	616	260
	신재생에너지	115,950	24,726	4,175	2,724	231	1,444	4,133	6,132	26,712	-921	3,724	8,902	6,351	4,350	11,893	9,705	1,669
	자동차부품기계	110,321	-2,708	4,175	10,574	2,304	6,012	2,319	3,751	26,618	1,725	2,722	13,012	8,717	5,159	7,195	18,821	-75
전남 전략 산업	RFT	17,300	3,306	311	369	571	20	3,369	287	5,757	303	-368	796	329	1,260	758	215	17
	생물	9,049	-412	61	-78	730	-46	-13	167	3,010	400	1,077	936	1,292	-81	311	1,617	78
	신소재	34,201	-3	283	1,559	1,312	496	862	1,982	8,913	-87	1,799	4,138	5,537	2,607	4,017	757	29
경북 전략 산업	조선	11,451	-290	-2,047	10	-479	-241	39	2,166	1,834	103	319	703	2,211	3,198	684	3,290	-49
	생물한방	14,440	-295	-690	-69	450	80	108	502	6,405	824	2,784	1,768	671	678	558	549	117
	신소재부품	57,415	-907	3,122	5,788	254	2,306	600	2,041	12,510	942	4,857	8,608	4,483	576	5,116	7,101	18
경남 전략 산업	전자정보기기	78,191	-342	4,383	843	1,905	1,950	1,025	-114	39,651	230	5,436	15,150	964	40	6,777	257	36
	바이오	8,119	631	165	111	514	310	932	-20	-238	1,282	1,347	994	638	773	-101	728	53
	산업용로봇	23,593	198	1,672	2,861	2,274	727	389	-414	8,311	50	538	1,446	1,379	349	2,115	1,690	8
	지능형휴산업	38,508	18,639	-4,656	710	-581	-1,457	2,690	441	13,241	1,059	365	1,908	566	230	1,954	3,642	-243
	지식기반기계	79,213	-373	2,729	5,537	626	1,107	1,220	4,154	20,924	858	4,138	8,896	4,790	3,785	6,835	13,993	-6

■ : 전략산업별 상위 지역 □ : 해당지역 전략산업

● 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 전국의 산업단지 일자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40.2만 명에서 171.3만 명으로 31.1만 명 증가해 22.2%의 고용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동기간동안 전체 일자리 성장률(11%)의 2배
 - 다만 전통적 산업지역인 대구(9.1%), 인천(14.2%), 울산(9.3%)을 비롯해 충북(18%), 전남(11.4%), 경남(12.2%)의 산업단지 고용창출률은 전국평균 산업단지 일자리증가율(22.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지역 산업단지에서 산업구조전환 등 적극적인 고용창출노력이 필요
 - 국가산업단지의 단위면적당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단지 내에서도 비제조업의 고용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단 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 선정 및 유치전략 마련 등 비제조업 육성이 필요

표 2 고용증가 상위 산업단지의 산업별 고용증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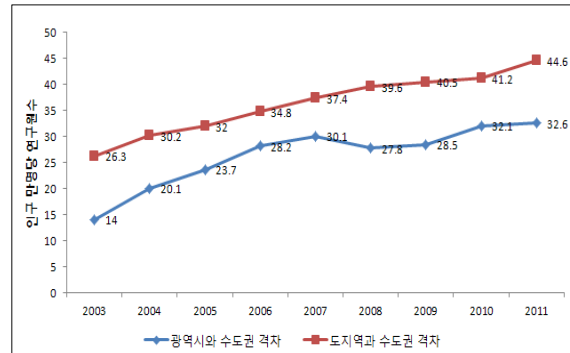
산업단지 계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섬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비제조	
경기	국가	반월	40,976	↑ 312	↑ 1,553	↑ 546	↑ 16,962	-1,973	-283	-3,021	↑ 21,270	↑ 4,121	▲ 113	↑ 1,376
서울	국가	서울디지털	35,167	▲ 141	↑ 385	-2,406	↑ 618	14	9	↑ 1,227	↑ 2,083	↑ 371	↑ 437	↑ 32,288
충남	일반	탕정	16,063	-	▲ -	-	▲ 51	↑ 3,561	-	-	↑ 12,451	-	-	-
경북	국가	구미 1~4	14,891	▲ 46	-848	▲ 101	↑ 2,226	-3,760	▲ 163	↑ 6,389	↑ 10,348	▲ 148	11	▲ 31
인천	국가	남동	9,534	-611	▲ 231	-1,821	-302	▲ 205	-670	↑ 10,448	↑ 3,326	↑ 968	-2,211	-29
경기	국가	시화	8,188	↑ 1,063	▲ 186	↑ 306	-1,903	-409	↑ 714	↑ 9,112	▲ 100	↑ 441	-912	-510
부산	국가	명지녹산	8,053	↑ 399	↑ 453	▲ 197	↑ 698	▲ 85	↑ 677	↑ 3,591	↑ 1,116	-6	↑ 853	-10
경기	일반	성남	7,929	↑ 2,063	-246	-190	↑ 590	▲ 46	1	↑ 382	↑ 1,380	28	▲ 89	↑ 3,786
경기	일반	파주 LCD	7,832	-	-	-	7	-	-	-	↑ 7,825	-	-	-
경남	국가	창원	7,452	▲ 86	8	▲ 73	-952	22	▲ 246	↑ 6,427	↑ 2,433	-939	▲ 35	13
전북	국가	군산 2	7,061	-4	-	7	▲ 110	-	▲ 165	↑ 1,483	▲ 75	↑ 4,954	▲ 220	▲ 51
대전	국가	대덕연구개발	6,655	▲ 174	▲ 53	▲ 169	↑ 1,476	↑ 349	-171	↑ 812	↑ 3,412	-84	-72	↑ 537
부산	일반	센텀시티	6,317	-	▲ 47	▲ 108	-	-	-	↑ 739	-	-	1	↑ 5,422
광주	국가	광주청단	4,303	-	-	-	▲ 125	▲ 32	4	↑ 418	↑ 2,997	-32	-	↑ 759
충남	일반	현대제철	4,171	-	-	-	-	-	↑ 4,171	-	-	-	-	-
전남	국가	여수	4,144	20	-	▲ 35	↑ 3,317	-30	▲ 40	↑ 495	▲ 117	-	-60	▲ 210
대구	일반	대구성서 1~4	3,680	▲ 197	-473	▲ 137	-146	-55	-291	↑ 2,325	-944	↑ 2,929	1	-
경북	일반	경산	2,748	17	-87	-3	17	15	17	▲ 138	▲ 232	↑ 1,227	↑ 1,175	-
충북	일반	오창과학	2,679	6	-2	-	↑ 2,228	▲ 265	-79	↑ 421	-170	-2	1	11
경기	일반	양춘	2,635	-	-	↑ 414	-	▲ 166	↑ 524	↑ 479	↑ 969	-	▲ 83	-
울산	국가	울산	2,599	▲ 96	-173	-92	-1,745	-56	▲ 250	↑ 3,258	↑ 1,182	-2,705	↑ 1,077	↑ 1,507
울산	일반	길천	2,558	-	-	-	▲ 51	-	-	↑ 798	-	↑ 1,587	▲ 122	-
대구	일반	달성 2	2,547	26	▲ 198	▲ 137	▲ 33	▲ 84	▲ 167	↑ 1,150	▲ 88	↑ 664	-	-
대구	일반	검단	2,529	1	-140	↑ 2,057	▲ 62	25	11	▲ 235	▲ 224	▲ 55	▲ 39	-40
전북	일반	전주과학	2,334	12	-	-	▲ 123	-	-5	↑ 370	↑ 838	↑ 823	18	▲ 155
인천	국가	부평	2,317	▲ 73	-35	▲ 225	↑ 323	10	-37	▲ 73	↑ 1,134	▲ 140	▲ 50	↑ 361
경기	일반	월릉	2,284	-	-	-	-	-	-	-	↑ 2,284	-	-	-
광주	일반	평동	2,125	▲ 149	↑ 480	▲ 169	▲ 203	-449	↑ 642	-1,005	↑ -583	-1,261	↑ 3,780	-
전남	국가	대불	2,106	▲ 31	▲ 70	-160	▲ 70	▲ 54	19	↑ 853	▲ 125	↑ 1,026	14	4
충남	일반	천안 3	2,081	↑ 349	-	-	-63	-	-	-141	↑ 1,965	-29	-	-
경북	외국인	구미·외국인	1,902	-	-	-	-	▲ 191	-	↑ 1,386	↑ 327	-2	-	-
울산	일반	모동화	1,823	-	-	-	-	-	-	-	-	↑ 1,823	-	-
충북	일반	청주	1,782	▲ 67	-138	-3	-796	-101	▲ 31	↑ 312	↑ 2,127	-57	▲ 68	▲ 272
경북	국가	포항	1,777	-	-	-	▲ 41	▲ 134	↑ 1,720	-13	-66	-34	-	-5
전남	일반	여수·울춘 1	1,681	-	-	-	-	10	555	55	-90	4	1,448	-246

4.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정책방향

■ 연구개발업·창업 등 내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의 창조적 성장기반 마련

-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업은 2008~2011년 동안 전국평균 고용증가율 11.1%보다 네 배 가까이 높은 42.7%의 높은 고용창출을 기록
- 지역에서도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따라 고용이 대체되는 제조업을 대신해 연구개발,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창출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내생적 성장이 가능
- 지역의 지속적인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인력 격차심화, 창업의 수도권 쏠림에 대한 정책적 완화·해소 노력이 시급

그림 3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인력 격차



■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친화적 산업입지 제도개선방향

- 지방에서 유출되는 창조적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도심에 산재한 노후산단에 대해 적극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산학융합지구 지정조건을 완화해 도시 내 산업집적지 등에서도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허용
- 이와 함께 지방에서 건설 중인 혁신도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연구소 설립·이전을 지원하거나 차별화하는 다양한 방안(Post-BI사업지원, 지역소재 공공연구기관 창업보육사업지원)을 마련함으로써 혁신과 창조의 전진기지로 활용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원 및 선정기준을 지역정착기간, 지역인원고용규모 등 지역고용 중심으로 재현해 지역에서의 기술개발과 고용창출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 추진 시 고용창출 효과를 고용영향평가제도 등으로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차등 적용
- 일자리창출과 창조적 지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로 소규모 지원금액을 배분하기보다는 미국의 Jobs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r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지원을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적극 고려³⁾

강호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연구위원 (hkang@krihs.re.kr, 031-380-0228)

3) 본고는 국토연구원 2013년도 기본과제인 「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전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분석결과와 정책과제는 보고서 본문을 참조